

견관절 불안정성의 견갑하근 및 관절낭 수평 분할을 이용한 하방 관절낭 이동술에 대한 단기 추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박진영 · 유석주

목 적

견관절 불안정성의 관절경적 수술로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견갑하근 및 관절낭 수평 분할을 이용한 하방 관절낭 이동술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한 15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13례 여자가 2례였다. 견관절 질환은 다방향성 불안정성 4례, 수의성 불안정성 3례, 골성 Bankart 병변이 있는 전방 불안정성 2례, 접촉성 운동선수의 전방 불안정성 6례였다. Bankart 병변이 없던 2례는 하방 관절낭 이동술만 시행하였고, 13례는 관절적 봉합술과 하방 관절낭 이동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관절낭 중첩 정도는 평균 19mm(범위: 10~25mm)였다.

결 과

술후 1례에서 아탈구 되었으며, 1례에서 전방 염려 검사에 양성 소견을 보였다. 술후 관절 운동 범위는 전방 거상과 팔을 체간에 붙인 외회전은 1° 감소하였다($p>0.05$). 90° 외전에서의 외회전은 운동 범위가 감소하지 않았다.

결 론

견갑하근 및 관절낭 수평 분할을 이용한 하방 관절낭 이동술은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없이 과잉 관절낭과 Bankart 병변을 치료 할 수 있어 관절경적 치료로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 권장될 치료법으로 사료되었다.